

국립목포대, 고교학점제 선도...지역 인재 양성 핵심 역할

전남교육청과 협력 교육지원 나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대폭 확대 교육격차 해소 앞장·진로 지원 강화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가 전남교육청과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고등학교 교육에 적극 개방하여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국립목포대의 고교학점제 지원은 전남 지역의 상대적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 발굴·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의 전문성과 자원을 전남 지역 고등학교와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목포대는 전남교육청 및 지역 고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세 가지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연계한

‘꿈키움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운영, 서남권 고교 연계 고교학점제 지원, 자율형공립고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이 그것이다.

국립목포대는 2022년부터 전남교육청과 함께 ‘꿈키움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2년에는 15개 강좌로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13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전남교육청 꿈키움캠퍼스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과목을 개설한 사례로,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과목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대학 자체적으로 고교학점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희망 학교에 교수진을 직접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교육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2023년에는 7개교에서 7강좌, 8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7개교 9강좌에 90명이 참여했다.

2025년에는 5개교에서 9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부

처 교육혁신실의 지원 아래 입학처 교육협력관실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립목포대는 현재 남악고, 목포고, 해남고, 영암고, 강진고, 여수고, 삼호고, 문항고 등 전남 지역 8개 자율형공립고 2.0 사업 참여 고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남악고와 해남고의 공동교육과정은 대학 통학버스 지원, 연구실 개방, 첨단 실험장비 이용, 실험보조 튜터 배치 등 대학의 풍부한 인프라를 고스란히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목포대는 2024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찾아가는 전공 특강’, ‘캠퍼스 진로진학박람회’, ‘1:1 맞춤형 집중 상담’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남 지역 고교생들의 진로·진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학생 학부모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2025학년도 입시에



국립목포대 2024 꿈키움캠퍼스 2기 생명과학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국립목포대 제공〉

서 정원내 등록률이 거의 100%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대학의 진정성이 지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고교-대

학 간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에 매진하며,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많은 특정 지역·학교 집중 지원

교사 수업권·학생 학습권 보장

전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와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2024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2023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학교나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발생이 잦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교육활동 보호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지역청을 직접 관리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사 간담회, 찾아가는 교원치유 프로그램,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컨설팅 지원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자주 발생해 업무 부담이 큰 교육지원청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부담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복잡한 사안은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 소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연차회, 분청·교육지원청 협의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인력 지원 등 현장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과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현장 밀착형 대응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학과 공청회

‘웰에이징 특화 모델’ 구체화...구성원 소통·아이디어 결집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2025 글로벌대학 혁신기획안 전체 학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조선대 대우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전제열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 단과대학장, 학과장 등 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대학 추진 계획과 혁신기획안 주요 내용 발표, 학사구조 개편안,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향, 질의 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이어졌다.

조선대는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다양한 대내외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2025 글로벌대학 성공 전략’ 혁신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수명 연장, 고령친화 및 시니어케어 산업 육성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웰에이징 특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전제열 부총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춘 웰에이징 분야의 혁신이 조선대학교의 중요한 사명”이라며 “조선대만의 독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예비 혁신기획서를 오는 5월 2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생 맞춤형 ‘토론·논술학교 NDD 교육과정’ 운영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은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론 및 논술 교육 프로그램인 ‘광주 토론·논술학교 제1기 NDD 교육과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엔디디 교육과정’은 New Debate Discussion Curriculum의 약자로, 학생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대학입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심화과정인 셈이다.

시교육청은 토론과 말하기 영역, 그리고 대입 논술 영역에 대한 심화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엔디디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제1기 교육과정 운

영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해당 교육과정이 확산해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엔디디 교육과정’은 학교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5명을 선정해 오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주말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과정은 총 3개 학급으로 나눠 인문 논술과목을 총 34시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습공동체를 통해 대입 논술·면접전형 이해, 논술문 작성, 논술 기출문제 분석 및 실제, 대입 면접 및 발표, 말하기 방법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토론 기술, 심층 독서토론 활동 등을 진행한다. 또 모든 과정이 끝나면 그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최종 에세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업은 토론·논술 전문교사와 토론논술교육이카 데미 인력풀 강사 등 전문인력이 맡으며, 비용과 자료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심화된 토론·논술, 대입 면접 및 논술전형 등을 학습하고, 협력적 사고와 토의·토론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은 교육감은 “엔디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대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논술, 대입 면접 등을 준비해 입시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